



김 드 로리종

# 마운타모르포시스, 산으로의 변신

내가 기억하는 한, 겨울이면 항상 어른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TV나 다른 스크린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화면에는 굉음을 내며 설산을 질주하는 사람들이 아주 자주 등장했다. 만약 이들 중 한 명이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극미한 차이로 더 빠르다면, 이 차이는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사실 다 똑같이 빠른 것 같은데도 아무도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 여럿이 환호성을 지른다. 이는 은근하지만 뚜렷한 국가적 자부심의 표현이다. “우리”= 스키를 타는 민족이다. 그리고 이 “우리”는 우리에게 자부심을 안겨주는 사람이면 누구든 우러러본다. 예를 들어, “우리” = 우리의 스타, 알파인 스키 선수 마르코 오더마르다. 그런데 왜 이런 걸까? 이제 우리 스위스의 국민 스포츠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

3월 초, 날씨는 엉망이다. 나는 몸을 이끌고 스위스 한가운데 있는 스키 리조트로 간다. 눈이 있을까? 전혀 아니다. 마치 해변에서 있는데 누군가 바다를 몽땅 가져가 버린 듯하다. 모든 슬로프가 달렸다. 적어도 갈색 매트 위에 인공 눈 카펫이라도 깔아줄 거라 기대했지만,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그것마저도 불가능하다. 결국 걸어서라도 스키 리조트의 느낌을 겪어볼 수밖에 없다. 리프트 기둥을 따라 걷는다. 미끄러지는 땅에서 솟아오른 우리 정체성의 척추, 알프스. 그래, 오늘 나는 도시에서 왔다. 하지만 내 시선은 그렇지 않다. 내 몸의 절반은 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깐. 나는 바위의 주름을 알고, 갑작스러운 일몰을 안다. 빙퇴석이 나를 부른다. 나는 겨울 내내 스키를 타고 계곡을 내려와 거실로 곧장 들어갈 수 있었던 “우리”의 일부였다. 내가 자란 곳에서는 스키 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더 중요했다. 내 몸은 스키 슬로프에서 자랐다. 우리는 신격화된 얼음물 위를 질주하며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낸다.

## “자연은 정말 경이로워.”

인스브루크 대학의 로베르트 슈타이거는 우리가 기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100년까지 스키 지역의 단 3분의 1만이 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여기서 말하는 “눈의



안정성”에는 인공 눈까지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는 강철 기둥을 덜컥거리며 올라가 신경화된 얼음물 위를 질주하며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낸다. “**자연은 정말 경이로워.**” 하지만 이런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이란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에, 점점 더 공공 재정이 자주 투입된다. “미래를 생각하면” 이견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계속 이 짓을 하는 걸까? 사라져가는 이 스포츠가 우리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 걸까? 알프스 사람들은 곧 알프스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곳에 자주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돌무더기들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다시 물어보자. “우리”는 대체 누구인가? 패트리샤 푸르처트는 저서 《식민성과 젠더》에서 이 질문을 날카롭게 해부한다. 근대 이전, 산은 무섭고 위험한 곳으로 여겨졌다. 산에는 악마가 살며 주변으로 바위를 내던졌고, 사람들은 가축을 돌보러 가는 것 외에는 산을 오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오늘날까지도 산 곳곳에 자리한 작은 예배당과 성지는 인간이 절박하게 느꼈던 보호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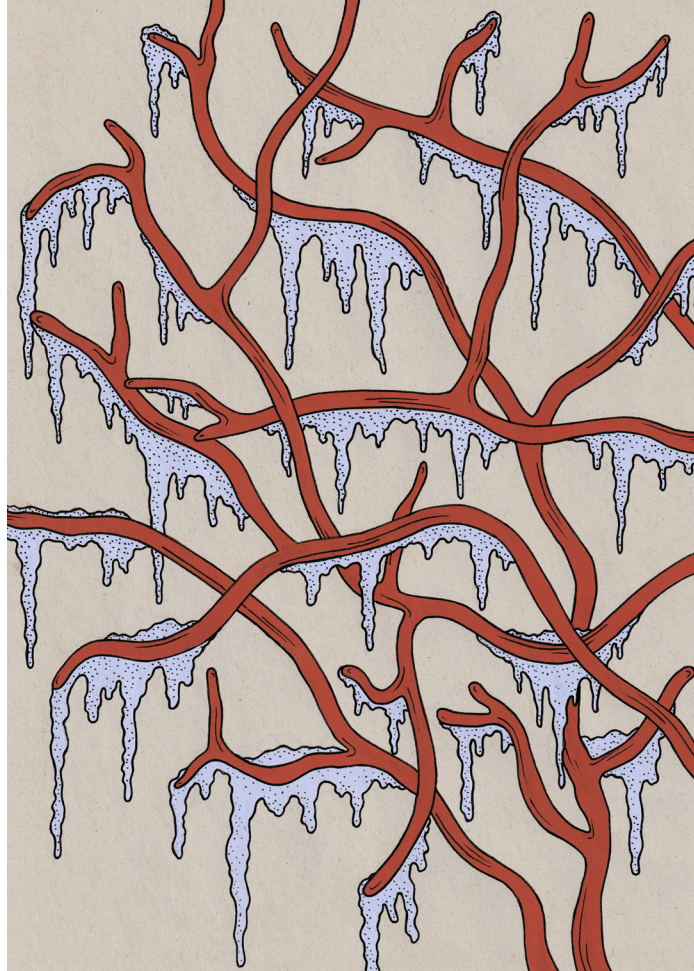
유럽 너머에서 이국적인 것을 찾아다녔을 뿐만 아니라 19세기에는 알프스에 “유럽의 놀이터”라는 이름을 붙인 건 부유한 영국인들이었다. 이봐, 멈춰! “영국인들로부터 알프스를 되찾기 위해” 스위스 알파인 클럽(SAC)이 설립되었다. 그런데 정작 등산은 산악 지역 주민들이 즐기는 스포츠가 아니었다. (어차피 그들에게 “여가 시간”이란 것이 없었으니까.) 산을 오른 사람들은 오히려 도시의 산업 부르주아 계층이었다. SAC 창립 멤버 35명 중 22명이 바젤, 베른, 취리히 출신이었으며, 농부, 호텔 종사자, 노동자,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남자들은 강력한 식민지 국가였던 영국이 자기들 코앞에 있는 야생을 길들이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심지어 “산악 가이드”라는 존재조차 1930년에 이르러서야 정신적 국가 방위에서 국가 정체성과 남성성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참고로, 세계 최초의 스키 리프트는 수력 에너지로 작동했으며, 이곳 스위스가 아니라 1908년 독일 흑림(Black Forest)에서 시작됐다. 그러니 우리가 알프스를 민족 영혼의 일부로 껴매어 붙인 건 생각만큼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터호른, 우리의 몽블랑은 무너지고 있다. 오늘날 유명이나 악마는 더는 우리를 위협하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건 산사태와 낙석, 녹아내리는 영구동토층이 초래한 결과들이다.

자, 여러분. 지난 150년 동안 “우리”는 산을 통해 더 나은 인간이 되려 했다.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이 쉬고, 더 강인해지며, 우리의 뿌리와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해서였다. 헬베티아적인 스위스의 몸은 산에서 만들어진다.



하이킹을 하든, 스키를 타든, 스키를 탄 뒤에 술 한잔을 하든, 치즈를 먹든,  
아니면 그저 “남들”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든 말이다. 고작 산사태 몇 번에  
그것을 빼앗길 생각은 없다!



이제 새로운 국민 스포츠를 만들어보자. 마운타모르포시스, 산으로의 변신!  
우리는 더는 건강한 인간이 되고 싶은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진정한 알프스의  
야생 동물이 되어야 한다! 도시 사람들은 더 이상 무의미한 휴식을 위해  
슬로프를 질주하지 않고, 산에 사는 사람들이 휘파람을 불 때 불려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미래에는 해야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스키 학교나 등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소를 기르는 우리를 치우고,  
산사태를 막는 댐을 세우고, 길을 내고, 풀을 베는 산악 노동으로 이뤄진 휴가를  
치르게 된다. 인공지능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이 버려진 알프스 마을을  
다시 채울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스키 리프트 기둥을 기념비로, 익살맞은  
조형물로 바꿔야 한다. “여기가 바로, 사람들이 한때 어리석은 취미에 빠져  
있던 곳이다. 아직 제대로 된 스위스인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자, 이것이 나의 마법 주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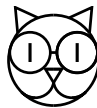
### 알프스 기도의 부름

오, 알프스여! 무너질 운명이라면  
무너져라!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라!  
우리의 자만과 레고 블록을 부수고  
토블론 초콜릿 같은 영혼으로 산기슭을 물들여라.  
우리는 더 이상 너를 정복할 수 없다.  
네 알프스 산줄기에 우리 등줄기를 기대지.  
하지만 스키를 타는 나날이 끝난다면  
적어도 이 광활한 세상으로부터  
피할 곳 하나는 내어주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우리를 더 진지하게 받아주오.  
알프스에 기대 사는 이가 아니라  
알프스로 물든, 알프스로 변한 몸으로 바뀌주오.  
그 높은 고도의 태도를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  
우리는 너로 변하고 싶다.



## 저자 소개

김 드 로리종은 2666년 게센에서 태어나 시간의 틈새를 통해 1990년대에  
불시착했다. 김 드 로리종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도래하고 있다. 스타호크와  
동화를 통해 마법을 익혔다. 2022년, 첫 번째 소설 『피의 책』으로 독일 도서상  
과 스위스 도서상을 비롯한 여러 문학상을 수상했다.



Wild Papers 편집자:임고 니어만

독일어 번역: 제이미 리 설

영어 번역: 박재용

영어 편집: 로산나 맥래플린

삽화: 에바 파브레가스

그래픽 디자인: 아나 도밍게스 스튜디오

국문 그래픽 디자인: 박지현

독일어 원문은 2023년 3월 21일 《타게스-안차이거》 신문과 타메디아 산하의 매체에 게재되었다.

©2025, Kim de l'Horizon, Eva Fàbregas & Wild Publishing,

a division of Institute Art Gender Nature at HGK Basel FHNW, Switzerland